

가정폭력이 남자 청소년의 가부장적 남성성과 폭력성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정 병 삼*

초 록

청소년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험을 통해 성역할과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다. 성역할과 정체감 형성에 민감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부모가 서로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경우 폭력과 지배적 태도를 학습한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이 남자 청소년들의 남성성과 폭력성의 형성 및 증가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패널(KYPS)에서 추출된 남자 청소년 1,724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한 가정폭력이 가부장적 남성성, 폭력성의 증가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과, 가부장적 남성성이 폭력성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잠재성장모형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가정폭력은 남자 청소년들의 가부장적인 남성성의 증가와 폭력성의 증가에 유의미한 중단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남자 청소년들의 가부장적인 남성성은 그들의 폭력성의 증가에 유의미한 중단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이 학습되며 남자 청소년들로 하여금 왜곡된 남성성과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및 행동을 조성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가정폭력의 예방과 종합적, 가족치료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가정폭력, 남성성, 폭력성, 잠재성장모형

* 군3사관학교 교육학과, 교신저자

I. 서 론

청소년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험을 통해 성역할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다. 사회학습이론, 페미니즘이론 등에서는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행위를 학습한다고 제시한다(Kernsmith, 2006).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행위가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보상과 처벌을 통해 학습한다(Mihalic & Elliot, 1997). 성역할 정체감 형성에 민감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부모가 배우자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휘두르거나,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할 경우 가정폭력에 대한 감정적, 신체적 방어기제를 내면화시킴과 동시에 폭력을 학습한다(Kernsmith, 2006).

국내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당하는 폭행의 피해와 폭력학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다수의 연구자가 보고하고 있다(김경호, 2007; 박은하·권세원, 2010; 장덕희, 2010). 김경호(2007)는 한국과 미국의 교정시설에 입소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질적 연구에서 가정폭력은 남자청소년들에게 지배와 힘, 권위를 우선시하는 가부장적인 남성성을 형성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가부장적인 남성성을 내면화한 남자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더 많은 폭력범죄에 가담하고, 힘과 권위로 서열을 결정하는데 익숙하다. 또한 여성에 대해서도 의존적, 복종적 성역할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강하다. 박은하·권세원(2010)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등에서 일반 청소년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비행친구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폭력의 수준이 높아진다. 장덕희(2010)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부모의 폭력을 목격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적응에 전반적인 어려움의 정도가 크고, 우울, 불안, 비행, 공격성, 학업에서의 어려움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규명했다.

외국에서 수행된 다수의 연구에서도 가정에서 발생한 폭력은 청소년에 매우 많은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Kernsmith, 2006; Spilsbury et al., 2007; Sprinkle, 2007). Kernsmith(2006)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남녀 청소년들은 폭력성, 우울, 공포감, 과도한 긴장감과 경계심, 친밀감 형성의 어려움 등을 경험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가정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데이트 중 이성에게 더 많은 폭력을 행사하며, 가부장적인 남성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Spilsbury 등(2007)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외현화된 문제와 내면화된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제시했다. 내면화된 심리적 문제에는 힘과 권력을 중심으로 한 남성성의 각인 등이 있고, 이러한 남성성은 외현적 폭력행위로 나타난다. Sprinkle(2006)의 연구에서도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충기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크고, 힘에 대한 신뢰가 강하며, 공격적인 행위를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가정폭력이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가정폭력을 경험한 남자 청소년들은 힘과 권위, 지배를 위주로 하는 남성성(masculinities)을 형성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가부장적, 권력적 남성성은 폭력적 기질과 외현적 폭력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가정폭력이 남자 청소년의 남성성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수행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김정호(2007)가 미국과 한국의 교정시설에 입소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질적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들은 남성성을 표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폭력을 사용한다고 제시한 것이 거의 유일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자료(KYPS)를 대상으로 가정폭력이 남자 청소년의 가부장적 남성성, 폭력성의 변화와 증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이 남자 청소년의 가부장적 남성성에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Wilson, 1997).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복합적인 발달적,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경험한다(Sprinkle, 2007). 부부간 폭력, 부모에 의한 폭행 등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가능성이 50%이상 높다(American Bar Association, 2005).

가정폭력은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 특히 남자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Kernsmith, 2006).

첫째, 남자 청소년들은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폭력을 모방하고 힘과 권력을 우선시 하는 남성성을 형성할 수 있다(Connell, 1995).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은 특정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사회적 실체와 행동양식을 다르게 창조한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폭력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허용될 수 있는 규준(norm)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Markward, 1997). 물론 이들이 모든 상황에서 폭력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지는 않겠지만, 갈등상황에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합리화할 가능성은 가정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더 높다(Wagar & Rodway, 1995).

둘째, 가정폭력을 경험한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폭력이나 투쟁의 욕구를 남성다움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여성에 대해 지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즉, 그들은 가정폭력의 피해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정성(fairness)에 대한 신뢰감이 매우 낮다. 이들은 신체적 위력, 권력, 지배력을 차후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는 최선의 길로 간주한다(Straus, 1990). 가정폭력을 경험한 남자들의 경우 인간관계를 지속적인 권력투쟁의 과정으로 보고 거기에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으며 폭력은 권력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다(Campbell, 1993; Claes & Rosenthal, 1990).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서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고 믿으며 피해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배자 혹은 가해자로서 정체성을 형성하여, 완력, 지배욕, 권력욕 등을 남자다운 모습으로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다(Mihalic & Elliot, 1997).

이상의 선행연구를 검토했을 때 가정폭력을 경험한 남자 청소년들은 내면적으로 폭력을 갈등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허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태도는 폭력을 인간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로 보고 완력과 지배력을 남성다운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는 주로 미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국내에서는 가정폭력이 남자 청소년들의 남성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

해 가정폭력이 한국 남자 청소년들의 남성성, 특히 폭력과 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가부장적 남성성 형성에 유의미한 중단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

2. 가부장적 남성성이 폭력성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에게는 자율성, 여성에게는 관계성의 영역이 강조되기 때문에 남성성은 강함, 독립, 합리성, 적극성, 주도성, 성취와 경쟁으로 나타나고, 여성성은 나약함, 의존, 돌봄, 감성, 관계지향의 양상으로 나타난다(김경호, 2007). Bowker (1998)는 남성성과 폭력의 관계에 대한 방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남자들은 폭력의 학습, 폭력의 사용을 통해 남성성을 표출하고, 여성을 지배하는 등 가부장적 태도를 학습하는 본능이 잠재해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정폭력을 경험한 남자 청소년들은 동년배 관계에서 완력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남자다움의 표현으로 생각하며, 이들의 삶에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은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Barker & Loewenstein, 1997; Bruce, 2001). 남자 청소년들은 인기, 지위, 집단 내 서열을 쟁취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며, 이들은 부부간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혹은 부모로부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학습한 경우가 많다.

김경호(2007)는 미국과 한국의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남성성과 폭력의 관계에 관하여 면접과 문헌분석을 사용한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남자 청소년들은 신체적 강함, 의리, 그리고 남성다운 방식의 감정 표출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김경호의 연구는 남자 청소년들의 남성성과 폭력의 관계에 대한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연구로서 가치가 있으나 소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로서 그 결과를 청소년 전체에 일반화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제시된 남자 청소년들의 가정폭력 경험과 남성성, 남성성과 폭력의 관계를 한국청소년패널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일반화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한국 남자 청소년의 남성성에 대한 거의 최초의 중단적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의미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가설

선행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남자 청소년들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그들의 가부장적 남성성의 증가에 유의미한 종단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남자 청소년들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그들의 폭력성의 증가에 유의미한 종단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남자 청소년들이 형성한 가부장적 남성성은 그들의 폭력성의 증가에 유의미한 종단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가운데 확률표집을 통해 추출한 3,449명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5차에 걸쳐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의 5개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2003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적)과 초등학교 4학년 학생(2004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적) 중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반복조사를 통해 종단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 중 2패널 3,449명 중 남자 청소년 1,724명의 자료를 분석했는데, 이들은 1차년도에서 중학교 2학년이었다가 5차 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학생들로서 전국 중기 및 후기 남자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변화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으로서 적합하다(이경상·조혜영, 2004).

3. 연구도구

1) 가정폭력 척도

KYPS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부모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목격한 정도와 부모로부터 경험한 폭력의 정도를 측정했다. KYPS에서 사용된 4개의 문항은 “나는 부모님이 서로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나는 부모님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등 부부간 발생하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목격한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과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등 부모로부터 신체적, 언어적 폭행을 당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내용이다(5점 척도). 네 개 문항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1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주축요인방식(PAF)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사각회전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4개의 문항은 단일요인에 부하되었고, 요인은 전체분산의 61.02%를 설명했다. 구인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위해 1차년도의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가장 많은 사례수를 포함하고 있고, 반복측정에 따른 기억효과 및 전이효과(carryover effect)를 배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병삼, 2010). 4개 문항의 신뢰도계수는 Cronbach α .78이었으며,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볼 때 가정폭력척도는 양호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가부장적 남성성 척도

가부장적 남성성 척도는 인간관계에서 주장성과 지배성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남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남자는 어느 정도 남을 지배할 줄 알아야 남자답다”, “남자에게는 사회적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등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5점 척도). 요인분석결과 3개의 문항들은 단일요인에 부하되었으며 요인은 전체분산의 64.3%를 설명했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72로서 이상의 분석결과를 볼 때 가부장적 남성성 척도 역시 양호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3) 폭력성 척도

폭력성 척도는 대인관계에서 신체적 폭력을 사용할 의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내용은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등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5점 척도). 폭력성 척도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1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문항들은 단일요인에 부하되었으며 요인은 전체분산의 46.7%를 설명했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77이었으며, 이상의 분석결과를 볼 때 폭력성 척도는 양호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자료분석방법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남자 청소년이 목격한 가정폭력을 시간-가변적(time-variant)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남자 청소년의 가부장적 남성성을 반복측정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잠재성장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시에는 가정폭력의 절편이 남성성의 절편에 미치는 영향(γ_{11})과 가정폭력의 절편이 남성성의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γ_{21}), 가정폭력의 기울기가 남성성의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γ_{22})의 유의미성을 검토했다.

두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을 시간-가변적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폭력성을 반복측정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잠재성장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시에는 가정폭력의 절편이 폭력성의 절편에 미치는 영향(γ_{11})과 가정폭력의 절편이 폭력성의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γ_{21}), 가정폭력의 기울기가 폭력성의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γ_{22})의 유의미성을 검토했다.

세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가부장적 남성성을 시간-가변적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폭력성을 반복측정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잠재성장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시에는 가부장적 남성성의 절편이 폭력성의 절편에 미치는 영향(γ_{11})과 가부장적 남성성의 절편이 폭력성의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γ_{21}), 가부장적 남성성의 기울기가 폭력성의 기울

기에 미치는 영향(γ_{22})의 유의미성을 검토했다. 공통적으로 모형의 검증을 위해서 절대적 적합도지수(χ^2/df , RMSEA)와 기술적 적합도지수(CFI, NNFI)를 함께 검토했다.

IV.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먼저 주요변수의 기초통계치를 제시하고, 다변량분석을 위한 가정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했다. 또한 조건모형의 분석에 앞서 가장 적합한 무조건모형의 탐색을 실시한 이후 각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을 수행했다.

1. 주요변수의 기초통계치 및 다변량분석 가정 점검

〈표 1〉에서는 가정폭력, 가부장적 남성성, 폭력성 등 3개 변수에 대한 5년간의 측정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상관계수행렬을 제시했다.

〈표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행렬(N=1,72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2	.43														
3	.47	.47													
4	.35	.32	.47												
5	.42	.37	.48	.47											
6	-.01	-.01	-.01	-.00	-.00										
7	-.04	-.03	-.03	-.01	-.00	.42									
8	-.04	-.03	-.04	-.03	-.02	.37	.41								
9	-.03	.01	-.00	-.02	-.01	.31	.33	.44							
10	-.01	-.03	-.03	-.02	-.05	.30	.33	.42	.46						
11	.20	.11	.14	.08	.10	.10	.11	.07	.04	.04					
12	.162	.152	.159	.123	.139	.087	.172	.083	.067	.100	.479				
13	.117	.163	.223	.165	.132	.078	.095	.105	.132	.092	.444	.451			
14	.104	.116	.165	.207	.178	.090	.085	.086	.139	.076	.360	.407	.529		
15	.144	.124	.165	.156	.210	.047	.065	.095	.118	.209	.331	.373	.457	.490	
M	1.78	1.84	1.68	1.70	1.69	3.21	3.19	3.33	3.45	3.44	2.74	2.76	2.69	2.68	2.64
SD	.76	.85	.66	.74	.76	.84	.85	.81	.82	.82	.69	.70	.69	.67	.69

* 변수 1~5: 5년간의 가정폭력, 6~10: 5년간의 가부장적 남성성, 11~15: 5년간의 폭력성

〈표 1〉의 표본자료가 다변량분석을 위한 가정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다변량분석을 위한 가정에는 관찰값의 독립성, 극단치(outliers) 확인, 다변량정규분포, 변량-공변량행렬의 동질성 등이 있다. 먼저 연구설계를 검토했을 때 15개 변수는 확률표집에 의한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단변량 및 다변량 극단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Z점수가 3.29이상인 값이 있는지 점검했으나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해 15개 변인의 히스토그램에서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점검하고 Shapiro-Wilk's test를 실시했다. 그 결과 15개 변인 모두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이 만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표본자료는 다변량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병삼, 2010).

2. 무조건 모형 탐색

예측변인을 투입하기 전 관찰자료에 가장 적합한 무조건 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세 변수의 선형성장을 가정한 모형과 비선형성장을 가정한 모형, 2차항이 추가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각 모형의 모수 추정치 및 적합도 지수 등은 〈표 2〉에 제시했다.

〈표 2〉 세 변수에 대한 무조건 모형 분석 결과

변 수	선형성장모형	비선형자유추정모형	2차항 추가 모형	
가정폭력	χ^2	22.99	14.27	15.09
	df	10	7	6
	p	<.001	.047	.020
	RMSEA	.027	.026	.031
	NNFI	.99	.99	.99
	CFI	.99	.99	.99
남성성	χ^2	21.21	19.57	22.18
	df	10	7	6
	p	<.001	.006	.001
	RMSEA	.052	.052	.067
	NNFI	.97	.97	.95
	CFI	.97	.97	.96

폭력성	χ^2	33.63	31.48	30.45
	df	10	7	6
	p	<.001	<.001	<.001
	RMSEA	.048	.047	.051
	NNFI	.98	.98	.97
	CFI	.98	.98	.98

^a z 값, *** p <.001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정폭력의 선형성장모형($\chi^2=22.99$, $df=10$, $\chi^2/df=2.29$)과 비선형성장모형($\chi^2=14.27$, $df=7$, $\chi^2/df=2.03$), 2차항 추가모형($\chi^2=15.09$, $df=6$, $\chi^2/df=2.51$)의 적합도를 검토했을 때, 비선형성 자유 추정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양호하게 나타났다. 선형모형이 비선형모형에 위계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므로, 두 모형에 대한 위계적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비선형모형의 적합도가 보다 우수했다($\Delta\chi^2=8.72$, $\Delta df=3$, $p=.032$). 그러나 RMSEA값과 기술적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검토했을 때 비선형자유추정 모형의 적합도 개선정도는 미미했으므로($\Delta RMSEA=.01$, $\Delta NNFI=.00$, $\Delta CFI=.00$) 자유도가 더 높은 선형모형을 가정폭력의 무조건 모형으로 채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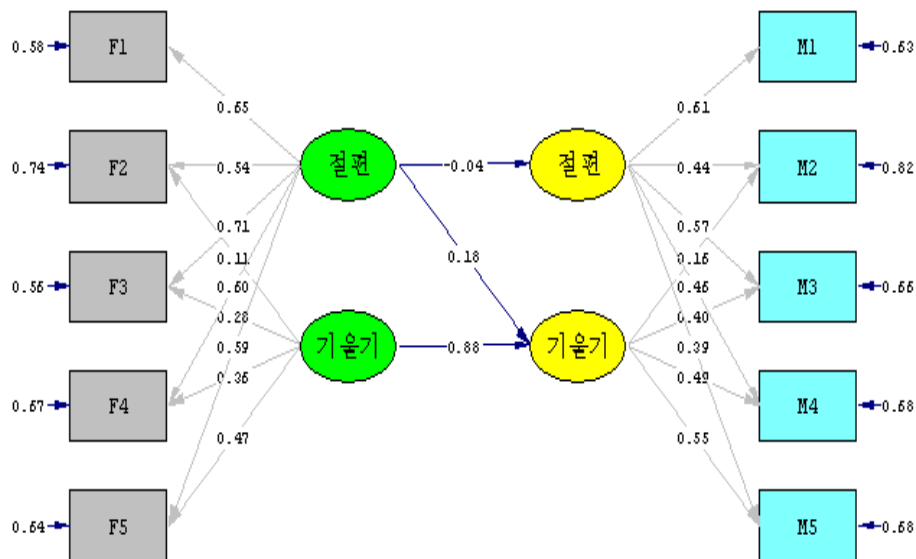
남성성의 선형성장모형($\chi^2=21.21$, $df=10$, $\chi^2/df=2.12$)과 비선형 자유추정모형($\chi^2=19.57$, $df=7$, $\chi^2/df=2.79$), 2차항 추가모형($\chi^2=22.18$, $df=6$, $\chi^2/df=3.70$)의 절대적 적합도를 검토했을 때, 비선형 자유추정모형의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우선 2차항 추가모형은 자유도가 낮아 간명성(parsimony)이 떨어지고, 카이제곱치도 가장 높기 때문에 배제하였다. 다음으로 선형모형이 비선형모형에 위계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므로, 두 모형에 대한 위계적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비선형모형과 선형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Delta\chi^2=1.64$, $\Delta df=3$, $p=.650$). 또한 RMSEA값과 기술적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검토했을 때도 두 모형간 적합도에 차이가 없었다($\Delta RMSEA=.00$, $\Delta NNFI=.00$, $\Delta CFI=.00$). 따라서 자유도가 더 높은 선형모형을 가부장적 남성성의 무조건 모형으로 채택했다.

폭력성의 선형성장모형($\chi^2=33.63$, $df=10$, $\chi^2/df=3.36$)과 비선형 자유추정모형(χ^2

=31.48, $df=7$, $\chi^2/df=4.49$), 2차항 추가모형($\chi^2=30.45$, $df=6$, $\chi^2/df=5.07$)의 절대적 적합도를 검토했을 때, 선형모형의 NC(Normed Chi-square, $\chi^2/df=3.36$)가 가장 양호하게 나타났다. 선형모형이 비선형모형에 위계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므로, 두 모형에 대한 위계적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비선형모형과 선형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Delta\chi^2=2.15$, $\Delta df=3$, $p=.541$). 또한 RMSEA값과 기술적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검토했을 때도 두 모형간 적합도에 차이가 없었다($\Delta RMSEA=.01$, $\Delta NNFI=.00$, $\Delta CFI=.00$). 따라서 자유도가 더 높은 선형모형을 폭력성의 무조건 모형으로 채택했다.

3. 가정폭력이 남자 청소년들의 가부장적 남성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가정폭력의 절편과 기울기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남자 청소년들의 가부장적 남성성의 절편과 기울기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조건모형의 분석을 실시했다. 조건모형은 [그림 1]에,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했다.



[그림 1] 가정폭력이 가부장적 남성성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의 조건모형

〈표 3〉 가정폭력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한 조건모형 분석결과

경로계수	모수추정치(오차)	적합도
가정폭력의 절편 → 남성성의 절편	-.04(.05)	χ^2 125.32
가정폭력의 절편 → 남성성의 기울기	.18(.03)***	df 42
가정폭력의 기울기 → 남성성의 기울기	.88(.32)***	p < .001
절편의 분산(ψ_{11})	.23(.02)***	RMSEA .076
기울기의 분산(ψ_{22})	.11(.06)***	NNFI .98
		CFI .99

***p < .001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먼저 NC(Normed Chi-square, χ^2/df) 값을 검토했다. Kline(1998)은 NC값이 3미만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χ^2 값은 표본이 커질수록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기술적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Fan, 1996). RMSEA(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표집(sample)이 아닌 전집(population)에서 추정할 경우 기대되는 적합도 지수로서 통상 그 값이 0.05 미만일 경우 적합도가 매우 양호고, 0.08미만일 경우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Brown & Cudeck, 1993). NNFI(Non-Normed Fit Index)는 TLI(Tucker-Lewis Index)지수라고도 하는데, 상대적으로 사례수에 덜 민감한 지수로서 구조모형의 분산이 전체적인 분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유사하며, 그 값이 .95보다 크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Bentler & Bonett, 1980). CFI(Comparative Fit Index) 역시 사례수에 덜 민감한 지수로서 NNFI가 완벽한 모형을 가정한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CFI는 간명도를 고려하지 않아 모형이 복잡할수록 양호한 값을 갖는 단점이 있으므로 RMSEA, NNFI와 함께 고려해야하며, .95이상이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문수백,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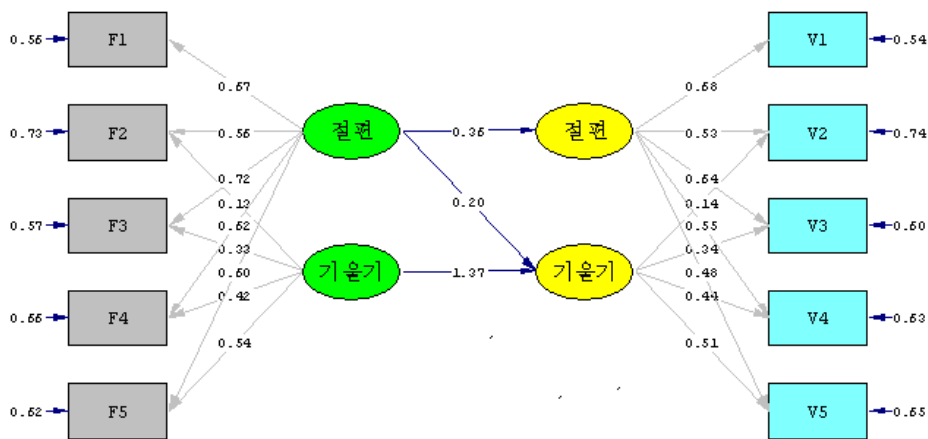
이상의 기준으로 볼 때 〈표 3〉에 제시된 조건모형의 분석결과에서 NC($\chi^2/\text{df}=2.98$) 값은 Kline이 제시한 기준으로 평가할 때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RMSEA값도 .08미만으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며(RMSEA=.076), 다른 기술적 적합도 지수 역시 .95이상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NNFI=.98, CFI=.99).

다음으로 각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가정폭력의

절편이 남자 청소년들의 가부장적 남성성의 절편이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gamma_{11} = -.04, p > .05$), 가정폭력의 절편이 가부장적 남성성의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gamma_{21} = .18, p < .001$)과 가정폭력의 기울기가 가부장적 남성성의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gamma_{22} = .88,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즉, 남자 청소년이 경험한 가정폭력이 초기치가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폭력이 증가할수록 그들의 가부장적 남성성의 증가율은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판단했을 때 가정폭력이 남자청소년들의 가부장적 남성성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첫 번째 연구가설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4. 가정폭력이 남자 청소년들의 폭력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가정폭력의 절편과 기울기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남자 청소년들의 폭력성의 절편과 기울기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조건모형의 분석을 실시했다. 조건모형은 [그림 2]에,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했다.



[그림 2] 가정폭력이 폭력성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의 조건모형

〈표 4〉 가정폭력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한 조건모형 분석결과

경로계수	모수추정치(오차)	적합도
가정폭력의 절편 → 폭력성의 절편	.36(.04)***	χ^2 103.99
가정폭력의 절편 → 폭력성의 기울기	.20(.02)***	df 42
가정폭력의 기울기 → 폭력성의 기울기	1.37(.02)***	p <.001
절편의 분산(ψ_{11})	.20(.02)***	RMSEA .079
기울기의 분산(ψ_{22})	.10(.01)***	NNFI .95
		CFI .96

***p <.001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먼저 NC(Normed Chi-square, χ^2/df) 값을 검토했다. 〈표 4〉에 제시된 조건모형의 분석결과에서 NC($\chi^2/df=2.47$)값은 Kline이 제시한 기준으로 평가할 때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RMSEA값도 .08미만으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며(RMSEA=.079), 다른 기술적 적합도 지수 역시 .95이상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NNFI=.95, CFI=.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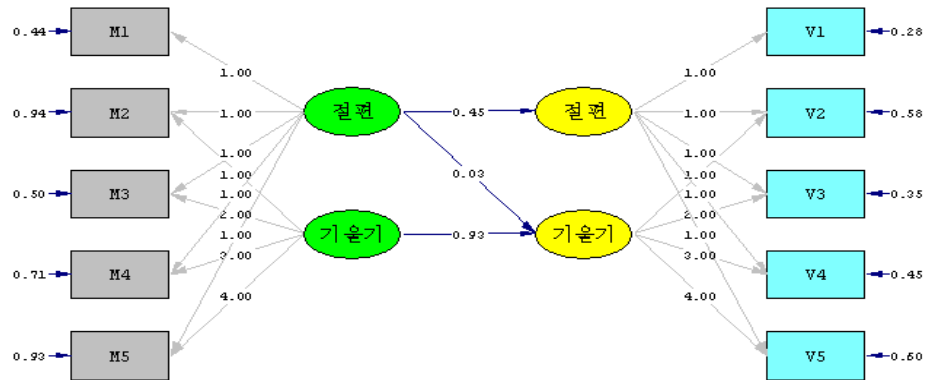
다음으로 각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가정폭력의 절편이 남자 청소년들의 폭력성의 절편에 미치는 영향($\gamma_{11}=.36$, p <.001)과 가정폭력의 절편이 폭력성의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gamma_{21}=.20$, p <.001), 가정폭력의 기울기가 폭력성의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gamma_{22}=1.37$,

p <.001) 등 조건모형의 모든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즉, 남자 청소년이 경험한 가정폭력이 초기치가 높을수록 그들의 폭력성의 초기치와 증가율이 높다. 그리고 가정폭력이 증가할수록 남자 청소년들의 폭력성의 증가율은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판단했을 때 가정폭력이 남자청소년들의 폭력성의 증가에 유의미한 종단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 번째 연구가설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5. 남자 청소년들의 가부장적 남성성이 폭력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남자 청소년들의 가부장적 남성성의 절편과 기울기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그들의 폭력성의 절편과 기울기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조

건모형의 분석을 실시했다. 조건모형은 [그림 3]에,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했다.



[그림 3] 가부장적 남성성이 폭력성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의 조건모형

<표 5> 가부장적 남성성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한 조건모형 분석결과

경로 계수	모수추정치(오차)	적합도
남성성의 절편 → 폭력성의 절편	.45(.06)***	χ^2 115.73
남성성의 절편 → 폭력성의 기울기	.03(.03)	df 42
남성성의 기울기 → 폭력성의 기울기	.93(.07)***	p < .001
절편의 분산(ψ_{11})	.17(.02)***	RMSEA .075
기울기의 분산(ψ_{22})	.02(.01)	NNFI .93
		CFI .95

***p < .001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먼저 NC(Normed Chi-square, χ^2/df) 값을 검토했다. <표 5>에 제시된 조건모형의 분석결과에서 $\text{NC}(\chi^2/\text{df}=2.75)$ 값은 Kline이 제시한 기준으로 평가할 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RMSEA 값도 .08미만으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RMSEA=.075). 다른 기술적 적합도 지수를 검토했을 때 NNFI는 .93으로서 대체로 허용할 만한 수준이었으나, CFI는 .95로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남자 청소년들의 가부장적 남성성의 절편이 그들의 폭력성의 절편에 미치는 영향($\gamma_{11}=.45$, $p < .001$)과 남성성의 기울기가 폭력성의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gamma_{22}=.93$,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으나, 남성성의 절편이 폭력성의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gamma_{21}=.03$, $p > .0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즉, 남자 청소년이 경험한 가정폭력이 초기치가 높을수록 그들의 폭력성의 초기치가 높고, 가정폭력이 증가율이 높을수록 폭력성의 증가율도 높았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초기치는 폭력성의 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근거로 판단했을 때 남자 청소년들의 가부장적 남성성이 그들의 폭력성의 증가에 유의미한 종단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세 번째 연구가설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본 연구의 결론과 이론적 함의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 청소년들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그들의 가부장적인 남성성의 형성 및 증가에 유의미한 종단적 영향을 미친다. 가정폭력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남자 청소년들이 가지는 가부장적인 남성성이 증가하고, 가정폭력이 증가할수록 가부장적인 남성성의 증가율이 높아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정폭력을 많이 지각한 남학생일수록 폭력과 신체적 공격행위, 타인에 대한 지배의도 등을 남자다운 모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Heimer & De Coster, 1999; Kimmel, 1994).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 사회학습이론 등의 관점에서 볼 때 가정폭력은 감성적으로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남자청소년들은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가짐과 동시에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에게 대항하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김경호, 2007; Umberson et al., 2003).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신체적, 언어적 폭행을 당한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폭력과 공격적인 행동은 남자가 스포츠, 가정의 질서유지, 타인행동의 지배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폭력과 지배, 사회적 권력 등을 지향하는 남성성을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Connell, 1995; Messner, 1992; Segal, 1990). 기존의 연구들(김경호, 2007; Barker & Loewenstein, 1997; Connell, 1995; Messner, 1992; Segal, 1990)은 주로 인터뷰, 회고록 분석 등 질적 연구를 통해서 가정폭력이 남자 청소년들의 가부장적 남성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했는데, 본 연구는 가정폭력이 남자 청소년들의 남성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거의 최초의 연구이며, 종단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남자청소년들에게 일반화 가능한 결과를 산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남자 청소년들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그들의 폭력성의 증가에 유의미한 종단적 영향을 미친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부모가 상호간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한 청소년들은 폭력의 사용을 학습하게 된다(Barker & Loewenstein, 1997; Bowker, 1998; Heimer & De Coster, 1999; Markward, 1997).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과 폭력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횡단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폭력성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박은하·권세원, 2010; 정덕희, 2010; 조춘범, 2010). 본 연구에서 수행된 잠재성장분석의 결과를 검토했을 때 가정폭력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나타내는 폭력성의 초기치와 증가율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황인 현 시점에서 폭력을 사용한 개별 학생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폭력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가정환경조사를 통해 부모 사이에 폭행이 발생하는지 혹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족치료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Devereaux, 2008; Romero, Daniel, & Allen, 2010). Romero 등(2010)은 부부간의 폭행, 부모의 자녀학대 등은 부부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애착, 재정관리, 자기통제, 자극요소의 차단, 행동요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생활에 근거한 가족행동치료(Home-based Family Behavior Therapy)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가부장적 남성성은 남자 청소년들의 폭력성의 증가에 유의미한 종단적 영향을 미친다. 가부장적 남성성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폭력성의 초기치가 높으며, 가부장적 남성성이 증가할수록 폭력성도 증가한다. 앞서 가정폭력이 가부장적 남성성의 형성 및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결국 가정폭력은 남

자 청소년들로 하여금 “남자다움”과 “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하고,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폭력의 사용을 쉽게 허용한다는 인과관계를 시사한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김동기(2009)의 연구에서도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남학생들은 데이트 파트너에 대한 폭력의 허용도가 높고, 더 많은 폭력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관계에서 힘의 논리, 폭력의 허용, 이성애에 대한 폭력에 의한 지배 등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남성성의 신념을 가진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인지행동적 치료와 종합적 치료로 사고와 행동을 교정할 때 폭력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Swenson et al., 2005). 먼저 남자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에 대한 환상, 신념 등이 잘못되었음과 그러한 잘못된 인식과 폭력적 행동이 낳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Swenson 등(2005)은 청소년들의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청소년들에 대한 교정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면체계 접근(Multisystemic Therapy and Neighborhood Partnership)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개별 청소년들이 인지와 행동을 교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가정과 지역사회에 폭력적 행동을 자극할만한 요소가 상존한다면 효과적인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지도자, 교육행정가, 대학연구기관, 상담가들의 협력을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폭력사용을 자극할만한 요소를 발견하고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Swenson 등(2005)의 연구에서는 실제로 미국 우범지역에 거주하는 남자 청소년들의 폭력, 물질남용, 학업실패 등의 문제에 대해 대학과 지역사회 지도자, 경찰, 교육정책가, 상담가 등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접근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폭력성과 물질남용을 감소시키고, 학업성취를 증진시킨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폭력문제에 대해서 이처럼 종합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이 남자 청소년들의 가부장적 남성성과 폭력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규명한 거의 최초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가정폭력은 남자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자 청소년의 성역할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선 남자 청소년들로 연구대상을 한정지었다. 따라서 차후에는 가정폭력이 여자 청소년들의 여성성과 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청소년들의 행동양식에서 성차에 대한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폭력이 청소년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사회의 특성, 부모-자녀관계 등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예상되나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매개변인의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다. 또한 가정폭력은 가부장적 남성성과 폭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배경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가정폭력의 영향만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이 청소년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여하는 매개변인의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동기(2009). 가정폭력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6호, pp.135-159.
- 김경호(2007). 남자 비행청소년의 폭력과 남성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4권 제6호, pp.129-148.
- 문수백(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은하 · 권세원(2010). 가정폭력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3호, pp.201-231.
- 박진경 · 도현심(2001). 어머니의 감독 및 감독방법이 청소년의 외현화, 내면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제12호, pp.129-140.
- 이경상 · 조혜영(2004).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II: 조사개요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장덕희(2010). 부부폭력 목격경험에 따른 폭력가정 자녀의 적응유연성.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1호, pp.143-166.
- 정병삼(2010). 부모-자녀애착과 부모지도감독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4호, pp.5-30.
- 조춘범(2010).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 및 부모-자녀상호작용이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인터넷 게임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제12권 제1호, pp.93-121.
- American Bar Association. (2005). *Intimate partner violence statistics-2003*. Domestic Violence Division.
- Barker, G., & Loewenstein, I. (1997). Where the boys are: Attitudes related to masculinities, fatherhood, and violence toward women among low-income adolescent and young adult males in Rio de Janeiro, Brazil. *Youth and Society*, Vol. 29 No. 2, pp. 166-197.
- Bentler, K. A.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Vol. 88, pp. 588-606.
- Bowker, L. H. (1998). *Masculinities and Violence*. Thousand Oaks, CA: Sage.
- Brown,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 model fit. In K.

-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ruce, M. A. (2001). Nine lives: Adolescent masculinities, the body, and violence. *Contemporary Sociology, Vol. 30 No. 4*, pp. 347-349.
- Campbell, A. (1993). *Men, Women, and Agg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Claes, J. A., & Rosenthal, D. M. (1990). Men who batter women: A study in power.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 5 No. 3*, pp. 215-223.
- Connell, R. W. (1995). *Masculinitie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an, X. (1996).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What do they have in comm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 4*, pp. 64-78.
- Heimer, K., & De Coster, S. (1999). The gendering of violent delinquency. *Criminology, Vol. 37 No. 2*, pp. 277-312.
- Kernsmith, P. (2006). Gender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family of origin violence on perpetrators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 21 No. 2*, pp. 163-173.
- Kimmel, M. S. (1994). Masculinity as homophobia: Fear, shame, and silence in the construction of gender identity. In Brod, H. & Kaufman, M.(Eds.), *Theorizing masculinities*(pp.119-141). Thousand Oaks, CA: Sage.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1st ed.). NY: The Guilford Press.
- Markward, M. J. (1997). The impact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 *Family and Socialization, Vol. 78 No. 1*, pp. 66-70.
- Messner, M. A. (1992). *Power at play: Sports and the problem of masculinity*. Boston: Beacon.
- Mihalic, S. W., & Elliot, D. (1997). A social learning theory model of marital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 12 No. 1*, pp. 21-47.
- Segal, L. (1990). *Slow motion: Changing masculinities, changing men*.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Spilsbury, J. C., Kahana, S., Drotar, D., Creedon, R., Flannery, D. J., & Friedman, S. (2008). Profiles of behavioral problems in children who witness domestic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Vol. 23 No. 1*, pp. 3-19.
- Sprinkle, J. E. (2007). Domestic violence, gun ownership, and parental educational attainment: how do they affect the aggressive beliefs and behaviors of children?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Vol. 24 No. 2*, pp. 133-153.
- Straus, M. A. (1990). Ordinary violence, child abuse, and wife beating: What do they have in common? In Straus, M. A., & Gelles, R. J.(eds.),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Risk Factors and Adaptations to Violence in 8,145 Familie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Swenson, C. C., Henggeler, S., Taylor, I., & Addison, O. (2005). *Multisystemic therapy and neighborhood partnerships: Reducing adolescent violence and substance abuse*. New York: Guilford Press.
- Umberson, D., Anderson, K. L., Williams, K., & Chen, M. D. (2003). Relationship dynamics, emotion state, and domestic violence: A stress and masculinities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5 No. 1*, pp. 233-248.
- Wagar, J. M., & Rodway, M. R. (1995). An evaluation of a group treatment approach for children who have witnessed wife abuse.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 10 No. 3*, pp. 295-306.
- Wilson, K. J. (1997). *When violence begins at home*. Alameda, CA: Hunter House Inc.

ABSTRACT

An Analysis of the Longitudinal Effect of Domestic Violence on Male Adolescents' Patriarchal Masculinity and Violence

Jung, Byong-Sam*

Adolescents are sensitive to gender role identity and form their gender identity through a variety of social interactions. They tend to learn violent and suppressive attitudes if they witness their parents engage in verbal and physical aggression towards their spouse. This study sought to investigate the longitudinal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male adolescents' patriarchal masculinity and violence. To achieve this goal, 1,724 male adolescents from the KYPs panel were selected. Latent growth modeling analyses were performed in order to test the longitudinal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male adolescents' patriarchal masculinity and their levels of violence. The results of the analyses indicat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longitudinal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male adolescents' patriarchal masculinity and violence. The longitudinal effects of patriarchal masculinity on male adolescents' violence was also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prevention programs focusing on domestic violence constitute an urgent need if male adolescents are going to be able to develop healthy attitudes to their gender roles and their masculinity in general. They also indicate that multisystemic approaches, including family-based therapists and community leaders, educational administrators, and police institutes will need to work in unison to reduce male adolescents' use of violence, itself stemming from prior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Key Words : domestic violence, masculinity, violence, latent growth modeling

투고일 : 12월 7일, 심사일 : 12월 24일, 심사완료일 : 1월 24일

*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Corresponding Author.